

예절상 / 이정록

예절상은
청소 잘하는 우림이라고 발표하자
애들이 수군거렸다
청소와 예절은 다른 거라고.



손 번쩍 들고 내가 말했다.

<누르면 탐라, 뭐야 넌?@@@>

“우림이는
땅바닥한테도 절하고 쓰레기한테도 인사합니다.
휴지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박수 치며 웃었다.
선생님이 엄지를 세웠다.

우림이 얼굴이 토마토케첩처럼 붉어졌다.

☺ 부처님나라에서 천 년에 한 번씩 상을 주기로 했어요. 부처님 미소를 닮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천 년이라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날들이라 금세 지나가는 세월이지요. 그야말로 천 년이 눈 깜짝할 새로 지나가처럼 지나간답니다. 하느님을 심사위원으로 부르고,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상 이름을 정하기로 했어요.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꺼냈어요. 뭐니 뭐니 해도 1이 최고지요. **1등상**으로 해요. 1등이라는 말은 숫자라서 듣기에 시원찮아 보여요. **최고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숫자보다 훨씬 멋져 보이지 않아요? 최고라는 말이 최고죠!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상장 같은 종이쪼가리보다는 실속 있는 걸 좋아하죠. 문상이라고 하면 마냥 신이 날 거예요. **문상**만 있으면 그것으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바나나맛 우유나 핫바도 사먹을 수 있어요. 어허, 다들 모르는군요. 세상에서 젤 소중한 것은 밥이에요. 한 끼를 굶으면 땅이 어지럽고, 두 끼를 굶으면 하늘이 어지럽고, 세 끼를 굶으면 지구도 제 갈 길을 못 가고 비틀거리는 게 밥 아니겠어요? 그러니 **밥상**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그러자 이리저리 갈 지(之) 자로 흔들리며 나온 사람이 말했어요. 밥상이 최고지. 하지만 **술상**보다는 못해요. 상 받는 기쁨을 알아주는 건 술상보다 더 나은 게 없지요! 이때 얼굴에 커다란 홍터로 눈코입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곰직한 얼굴은 볼로 덴 상처랍니다.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부처님으로 변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자식의 얼굴 화상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부처님보다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바라보신답니다. 상처가 없다면 사랑도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 **화상**보다 아름다운 상은 없지 않을까요? 심사위원으로 오신 하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거 같다. 꽃봉오리도 한 잎 한잎 갈라지는 아픔이 없다면 사랑과 기쁨을 누리질 못하지. 둥근 지구도 처음에는 온갖 상처투성이여서 우주에 버려졌었지. 살점덩어리가 끝없이 떨어져나가는 아픔을 견디고 나서 비로소 생명의 낙원으로 우주에서 가장 눈부신 행성이 되었단다. 하느님 말에 화상으로 그을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 함께 이야기 나누기

2019년 6월 14일(금요일)

____학년 ____반 ____번 이름 : _____

1. 왼손(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이정록이 쓴 '예절상'을 옮겨 써봅니다.

(*왼손으로 오른 뇌를 일깨우며 쓰는 시는 내 마음을 더욱 시심으로 물들게 합니다.)

2. 살면서 내가 받은 상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상은 무엇이었나요?

3. 땅바닥에 절하고, 쓰레기한테도 인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4. 선생님은 청소와 예절을 다르지 않게 보았나요?

5. 큰일을 당한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리고 아팠을 때는 언제였나요?